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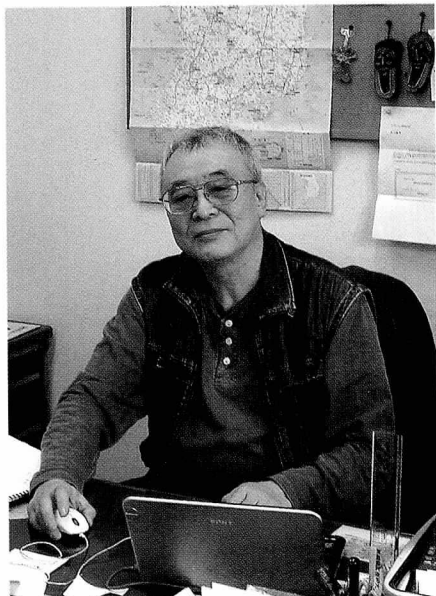
다 국 어 인쇄 로

일본서 명성

일본 오사카(大阪)에 위치한 인쇄회사 KBS(주)가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았다. KBS는 한글을 중심으로 유럽 각국어, 중국어, 타이어, 아라비아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다국어를 번역에서부터 DTP, 인쇄,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 일본어 소프트웨어 로컬라이즈까지 폭넓게 취급하고 있는 인쇄회사다. 이 회사의 대표인 고인봉 사장을 만나 재일동포로서 일본인들 사이에서 한국인의 자존심을 세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고교 신문부에서 인쇄와 첫 인연

고사장의 부친은 제주도 출신으로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일본에서 조그마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고 조국은 36년 간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 당시 재일동포는 2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들은 새로운



국가건설의 희망을 안고 속속 귀국했다. 고사장도 어머니, 형과 함께 조국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가지고 올 수 있는 재산이 제한돼 있었기 때

사무실에서 작업중인 고인봉 사장

문에 아버지는 그것들을 정리한 후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1948년 조국은 남북으로 갈리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어머니는 전쟁 중에 병사하고 9살 연상의 형은 입대하게 되어, 고사장은 아버지가 있는 일본으로 재차 해협을 넘었다.

학교는 재일 한국 조선인의 자체 교육기관으로 문부성 인가 건국중학교에 2학년생으로 편입했으며, 고등학교도 같은 재단의 건국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일본어 고문을 배우는데, 읽어 나가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었다. 현대어도 제대로 모르는데 고문을 잘 한다는 것에 대해 선생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다.

고등학교에서는 신문부에 들어가 일찌감치 인쇄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업계지 기자, 활판인쇄사 경영자로

전국의 학교신문 콩쿠르에서 입상하는 등 명편집장다움을 발휘하고 졸업을 한 고사장은 신문기자가 되었다.

1962년 20세 때 고졸이었기 때문에 업계지를 목표로 해서 식료, 자동차, 석유 등 다양한 업종을 찾아다녔으나, 오사카(大阪)에 자체 활판공장을 가지고 있는 합성수지공업신문이라는 플라ستيك업계지에 채용되었다. 고사장은 편집부에 소속돼 신문 외에 월간지, 레이아웃도 하면서, 취재도 소화해 냈다.

이렇게 업계지에서 일하고 있던 고사장은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서 학비가 저렴한 오사카경제대학 야간부에 입학했다. 대학에서는 朝文研(조선문화연구회)과 재일 한국학생동맹에도 관계했다. 이 때 민단(재일본 대한민국거류민단)의 존재를 알게 돼, 자신도 재일동포, 한국인 사회의 일원임을 깨닫고 민단소속으로

KBS(株)의 회사 내·외부 전경



〈약력〉

- 1941년 오사카 출생
- 1962년 3월 건국고등학교 졸업
(오사카 소재 한국학교)
- 1967년 3월 오사카경제대학 졸업
- 1968년 1월 교문사 인쇄소를 시작
- 1990년 1월 KBS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

활동하게 되었다.

그 후, 신문사를 그만두고 민단을 거쳐, 교분샤(僑文社)라는 한글 전문의 작은 활판인쇄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곳은 제일 한국 기독교회의 부지 내에 있어 '복음신문' 등을 인쇄하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곳의 사장이 회사를 양도 하고 싶다고 해서 집을 팔아 설비를 매수, 새롭게 자택 겸 공장을 차렸다. 부인과 둘이 시작해 제일 한국인 단체, 학교, 영사관, 민단 등을 단골로 해서 결혼 초대장 등 간단한 인쇄물부터 시작했다.

1970년대가 되어서 한국용 기계 카탈로그, 설명서 등의 일이 늘어나고 한국어 포스터도 발주 받아 수동식자기를 도입해 오프셋으로 교체했다.

전산사식으로 '조선어대사전' 발간

1981년 가도가와(角川)서점에서 '조선어대사전'의 조판 타진이 있었는데 이것은 수동 사식으로는 곤란했기 때문에 한글 전산사식을 모색해, 모라사와 사식기 메이커와 상담, 그 이듬해인 1982년 입력조정기 제1호기가 완성됐다. 이것은 일본에서 한국보다도 빨리 실용화되었으며, 사전은 이후 3년 간의 노력 끝에 1985년에 완성되었다.

KBS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설비도입과 서울에 지사를 설립하는 등 사세확장에도 힘을 쏟는 한편, 1991년 매킨토시를 도입해 현대화하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1993년 맥 다국어 이미지세터를 도입해 다국어 인쇄시스템을 갖췄으며, 이것은 각종 경제지 및 월간지 등에 소개될 정도로 일본 내에서도 큰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CTP의 도입이나 홈페이지의 개설도 남보다 빨리 관

심을 갖고 선구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지금도 고사장은 60이 넘은 나이에 불구하고 항상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촬영해 회사 홈페이지나 개인 홈페이지(www.kbsjapan.com/bong/)에 올리고 있다.

아름다운 한글 일본에 심고 싶어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일본에서 불모지나 다름없던 다국어 인쇄업을 하고 있는 고사장은 한국 관련 인쇄물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글을 일본에 퍼트리려고 싶어서였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관련 일들을 많이 욕심내서 하고 있다.

인쇄관련 전반적인 일을 하고 있는 고사장은 활동영역도 넓어서 오사카상공회의소 교류회, 한국 관련 단체 및 회사 등에도 관련하고 있다. 이러한 고사장의 특이한 이력으로 인해 일본의 인쇄전문 업계지인 '인쇄정보'에도 소개되었다. 오사카에 있는 재일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일'이라는 시리즈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된 것이다.

고사장은 서체에 관심이 많아 1991년 MAC을 도입하면서 처음 다국어를 시작할 때 한국에서 서체를 도입했는데, 더 멋있는 새로운 서체를 장만하고 싶어한다. 그것은 일본에 아름다운 우리의 한글을 소개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사장의 한글사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금년 초부터 회사 옆에 '한글교실'을 열어 일본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www.tagengo.jp/madang)

인터넷, 자전거, 영화, 여행, 비디오카메라 촬영 등이 취미인 고사장의 향후 계획은 아직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다국어에 관련하면서 언제나 미래를 내다보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이다.

〈윤재호 부장〉